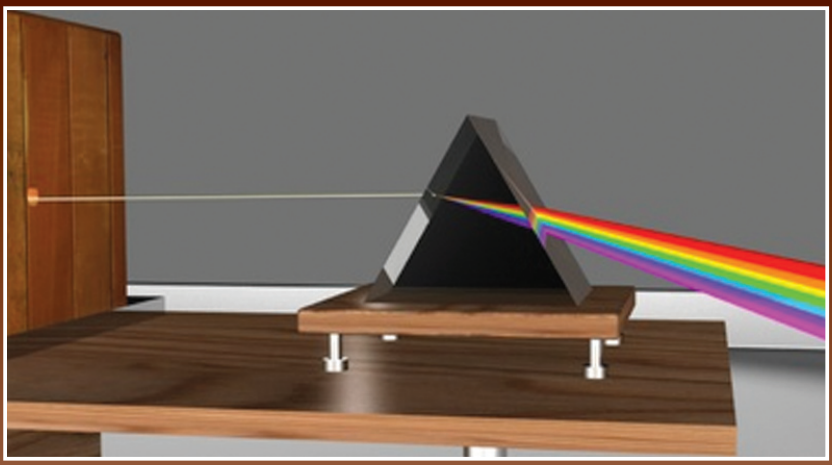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10 10 2015



빛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창세기(창 1:1)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곧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창1:3)하여 물질 체계를 완성하셨다. 물리계는 이 네가지 요소가 연합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 독립적인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묶어 하나의 시공(space-time)으로 다룬다. 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 이 둘을 서로 분리해 낼 수 없다. 그리고 빛이 없는 시간과 물질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일까?

우주에서 빛은 근본적인 에너지이다. 우주는 이 빛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불가시 영역의 모든 것을 말한다.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은 빨주노초파남보 7개 무지개 색으로 분광된다. 사람의 눈은 파장이 긴 적색(800나노미터)부터 보라색(400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다. 건강한 눈 일지라도 적색 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과 또 보라색 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

P.O.Box 819, Norwalk, CA 90650 / TEL 562 868 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오늘날 과학자들은 빛을 전자기적 모든 영역의 에너지인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여긴다. 물론 전자기파 외에 또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 현재 과학기술이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는 파장이 긴 전파에서부터 파장이 매우 짧은 감마선까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광선은 극히 좁은 영역의 빛인 셈이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299,792.458 m/s로 초당 약30만 Km를 이동하는 속도이다. 빛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1광초(light second)거리이고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를 1광년(light year= 9.5 x1012Km)으로 정의하며 천문학에서 광년이 거리의 기본 단위이다. 천문학에서 이렇게 진공에서 빛의 이동 속도를 거리의 기준 척도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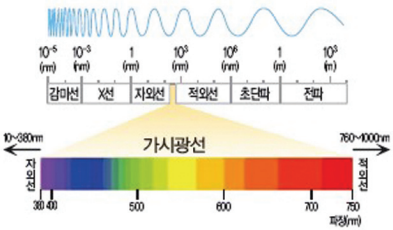
그런데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며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것으로 과거에 생각하였지만[1] 오늘날 빛의 속도는 중력장이나 자기장 등 통과하는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통념이다. 2000년 NEC는 세슘챔버를 통과하는 빛에 대한 실험을 통해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보다 300배 이상 더 빨라짐을 확인한 바 있다[2]. 이렇게 실험을 통하여 이제 우주를 달리는 빛이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물리량이 아님을 보여 주게 된 것이다

빛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1609년 갈릴레이가 렌즈를 이용한 망원경을 제작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망원경을 통하여 천체 관측이 용이해 졌고, 거의 같은 시기에 현미경이 개발되어서 세균과 같은 작은 미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거시의 세계인 천체와 미시의 세계인 물질 내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렌즈를 통한 빛의 반사와 굴절 등 특성에 대한 연구 외에 빛의 본질에 대한 연구 또한 계속되어왔다. 희랍시대 원자설을 주장한 데모크리토스 (Democritus 460-370BC)는 빛을 여러 가지 색을 가진 작은 알맹이들로 생각하였다. 17세기에 호이겐스(Christian Huygens)는 빛을 마치 물결치는 매질로 보고 파동설을 소개하였지만, 18세기 초 뉴톤이 입자설을 지지함으로써 한 동안 빛은 입자라고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1801년 영국의 영(Thomas Young: 1773-1829)이 빛의 간섭현상을 실험적으로 발견[3], 다시 빛의 파동설이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입자설과 파동설이 양립하게 되었다.

파동설이 지지를 받게 되자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우주공간에 빛의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매질(에테르)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 매질을 통하여 빛의 본질을 설명해 보려고 하였으나 마이클손-몰리(Michelson-Morley)의 실험으로 빛의 진행은 매질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4] 1864년 맥스웰(Maxwell)은 역학

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전자기 이론을 완성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빛도 본질적으로는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효과 현상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됨에 따라서 빛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또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파장에 따른 빛. 감마선 → 전파로 가면서 파장은 길어지고 에너지는 적어진다.

이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쉬타인은 1905년 광양자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 개념으로 빛을 설명한다. 아인슈타인은 이 가설로 양자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빛에 대한 현대적 해석인 파동-입자 이중성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 결과 입자설과 파동설을 모두 조화시킨 광양자(Photon)의 개념으로 빛을 설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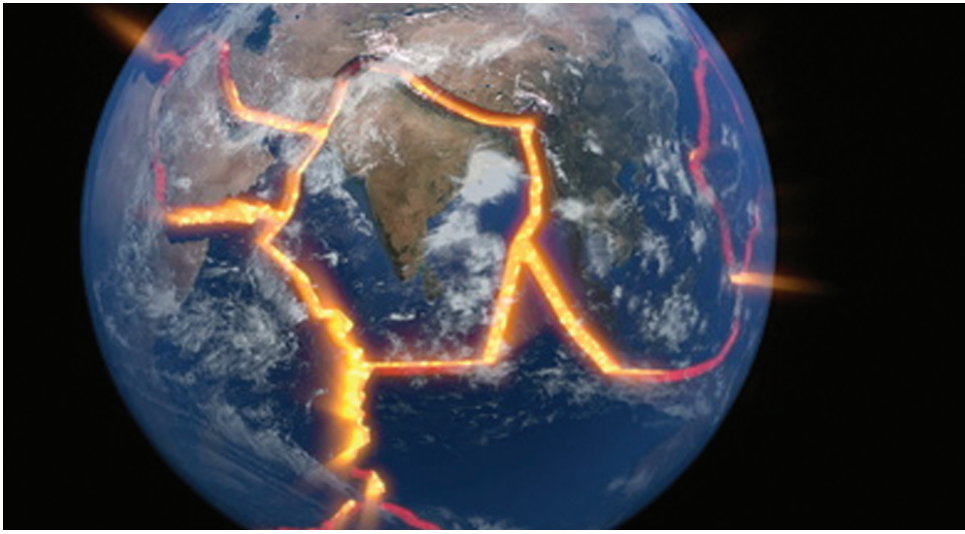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빛 뿐만 아니라 후에 발견된 모든 다른 미립자들도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함께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빛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 학설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러나 과연 빛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순수한 입자도 아니고 순수한 파동도 아닌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갖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에게 빛에 대한 그 실체는 아직도 규명되지 아니한 미스테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욥 38:19)라고 물으실 때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지만, 물리학은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모르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더더욱 답할 수 없다. 그렇다. 인간은 빛의 근원에 대해 성경을 떠나서 결코 답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의 놀라운 특성들을 통해 빛을 만드신 그 첫째 날의 명령에 대해 상기시키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1:3,4).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1] Rainwater, C. and Perlman, R., Light and Color, Western Publishing Company, 1971.
[2] Wang, L., NEC Success in Superluminal Light Propagation Proves Light Can Travel Faster than its Speed in Vacuum, NEC Press Release 2000/7/19-01, 2000.
[3] Young, T.,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the General Law of the Interference of Light,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Vol. 94, 1804.
[4] Michelson, A.A. and Morley, E., On the Relative Motion of the Earth and the Luminiferous Ether, Americal Journal of Science, 34(203): 333-345, 1887.



격변적 **맨틀**의 이동

지난 4월 네팔에서 약 규모 8 정도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9,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나라로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은 모두 대륙판으로서 과거 두 판이 부딪히면서 높이 솟아오른 지형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다. 사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 대부분은 맨틀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이며 생기는 역학적 과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의 판들은 왜 움직이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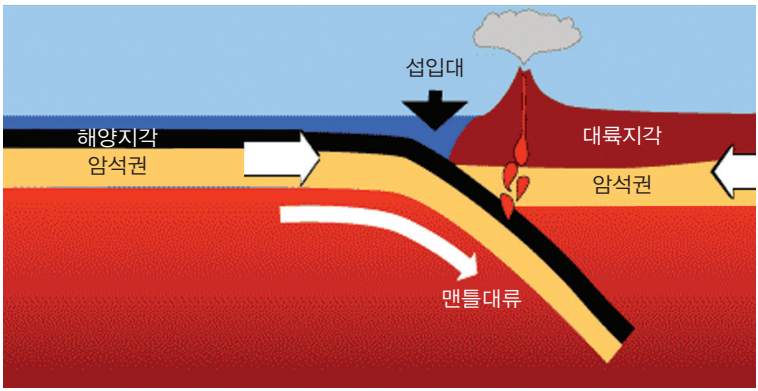
판 이동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맨틀의 대류 (mantle convection)를 그 원인으로 이해한다. 맨틀이 대류를 한다는 말 때문에 지구 맨틀이 액체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맨틀은 금속원소를 포함하는 규산염 광물 (silicate)과 그 변형체로 이루어진 고체 암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단한 고체 암석이 대류를 한다는 말일까? 대류라는 단어는 열이 전도(conduction)가 아닌 물질의 이동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맨틀은 열의 전달이 전도보다 맨틀의 이동에 의해 우세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대류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맨틀의 움직임을 따라 지구 표면에 있는 판들이 마찰에 의해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오늘날 판의 이동속도는 약 2 ~ 7 cm/yr 정도로 매우 느리다.[1]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오늘날의 속도로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동했다는 '동일과정설'적 해석을 적용해서 아주 오랜 시간 판이 이동해왔고 이러한 느린 판의 이동이 진화론을 뒷받침한다고 순환 논리적 주장을 한다. 과연 맨틀의 대류가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속도로만 이동했을까? 맨틀이 고체 암석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맨틀이 과거 아주 빠르게 이동했음이 설명될 수 있다.

고체 물질의 역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응력(stress)과 변형률(strain) 이다. 응력은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에 대해서 변형되지 않으려는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물질의 강도(strength)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힘에 의해 물체가 변형되는 정도를 변형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로부터 물질의 역학적 특성(mechanical properties)을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 맨틀의 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변형되는 정도는 줄어들고 쉽게 부서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응력이 낮아지면 쉽게 변형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물체의 응력(또는 강도)은 여러 환경적 또는 내부적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온도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암석의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 열을 받으면 매우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암석도 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진다.

물질이 변형되며 이동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마찰에 의한 열 방출 (shear heating)이다.[2] 이러한 열의 생성은 고체와 같이 점도가 매우 높은 물질에서 더욱 중요한데, 맨틀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이 열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이 온도가 맨틀의 강도를 낮추어 쉽게 변형되게 한다. 재밌는 사실은, 이같은 맨틀의 변형은 이동을 쉽게 하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이

그림 1) 판과 맨틀 / 지각과 암석권을 합하여 판(plate)이라 한다.



빨라진 이동 속도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열이 생성되어 맨틀의 이동속도를 더욱 높이며 이렇게 맨틀의 대류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학적 시뮬레이션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림 2에서 보여주듯,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각(파란색)이 맨틀 속으로 가라앉을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며(붉은색) 이러한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아주 빠른 속도로(초당 수 m) 가속화된다. 이 정도의 속도로 대략 1년 정도면 오늘날의 판의 모습으로 이동되는데 충분하다.[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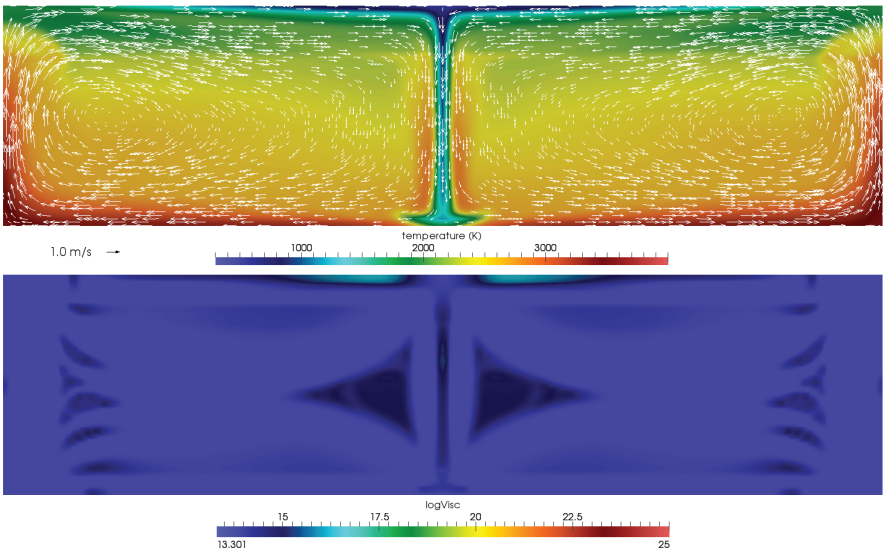


그림 2) TERRA2D / 유한원소법(FEA)을 사용한 맨틀 대류모델. 위 그림에서 차가운 지각물질이 중력에 의해 빠르게 가라앉으며 주변에 열이 형성된다. 이 열로 인해 맨틀의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 하얀색 화살표는 이동속도를 나타낸다.[4]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창 6:17)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시는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땅은 매우 격변적으로 이동했고 파괴되었다. 이러한 판들의 격변적 이동에 대한 증거들은 압도적이고 분명하다. 판의 이동에 있어서도 지구의 연대가 성경의 연대대로 젊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겨우 일년에 2cm 정도 이동하는 판에서 일어난 네팔 지진의 위력을 생각하면, 홍수 당시가 어땠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우리만큼 격변적이었을 것이다. 노아홍수가 지역적 홍수였다는 주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홍수를 그토록 자세히 성경 속에 기록해두신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 않은가! 아마도 오늘날처럼 자신들의 실제 역사를 쉽게 잊을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선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일 것이

다. 수십억 년의 진화역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역사다.

조희천 / 지구물리 박사과정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참고문헌

1. Jet Propulsion Laboratory website, http://sideshow.jpl.nasa.gov/post/series.html
2. I.J.Gruntfest, 1963, Thermal feedback in liquid flow; plane shear at constant stress, Transactions of the Society for Rheology, 8, 195–207
3. J.R. Baumgardner, 2003, Catastrophic plate tectonics: The physics behind the Genesis Flood, in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R.L.Ivey, Jr. ed., Pittsburgh, PA: Creation Science Fellowship, 113–126
4. J.A. Sherburn, J.R. Baumgardner, M.F. Horstemeyer, 2013, New Material Model Reveals Inherent Tendency in Mantle Mineral for Runaway Mantle Dynamics, in Proceedings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Pittsburgh, PA: Creation Science Fellowship

*아래와 같이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 간 2016년 1월 4–7일(월–목)
경유지 LA 출발– Mojave Desert– Grand Canyon– Bryce Canyon– Zion Canyon– LA 도착
참가 자격 미국에 유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 도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석사)
참가비 $50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참가 방법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 www.HisArk.com에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참가비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창조과학 탐사

지난 8월 17-21일 코너스톤 교회(담임목사 이종용)과 함께 특별한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2세들이 참석하였는데 닷새 중에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의 캠프 장에서 2박을 했습니다. 창조과학탐사에서 캠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만 사흘을 머물렀기 때문에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박을 한 다음날에는 Bright Angele Trail로 등반하는 것으로 하루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그랜드캐년을 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홍수 심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감격은 더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중간 기점인 3mile Rest House를 반환점으로 삼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창조 때의 땅을 꼭 만져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날 저녁 세미나에서 창조 때의 땅과 심판 때의 땅의 경계에 대하여 배운 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창조 때의 땅의 경계는 중간 기점에서부터 한 시간 이상은 내려가야 하고, 다시 올라오는 데는 두 시간이 더 듭니다. 그래도 갈망하는 마음을 접을 수 없었기에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결국은 창조 때의 땅을 밟고 만졌습니다. 참으로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사진).

돌아오는 버스에서 한 사람씩 성경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성경의 확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간증은 버스 전체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방법론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깔려있는 2세들의 성경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전체가 통역으로 진행되었는데 통역을 맡아주신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샌디에고 기쁨의 교회와 울산교회

지난 8월 10-12일 사흘간 샌디에고 기쁨교회(담임목사 박요셉)와 울산교회(담임목사 정근두)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기쁨교회를 중심으로 모집되었으며 울산교회 중고등 학생들의 미주비전 여행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폭넓은 범위로 전 가족이 참석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성경이 누구에게나 사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의교회 / 울산교회

남침례회

남가주 남침례회 한인지방회

지난 8월 13-15일 남가주 남침례회 한인지방회 목사님과 가정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증거뿐 아니라 최근 감소하는 다음 세대 크리스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성경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첫째 이유라는 것에 공감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위험성과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책들도 논의하셨습니다. 올해 R&R, 기독교 미래연구소, 북가주 교역자 협의회 등 목사님께서 단체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확신 속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석수교회

멕시코 뿌에블라

안양석수교회

지난 8월 25일-9월 1일 안양석수교회(담임목사 김창곤)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그랜드캐년 지역뿐 아니라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경유하며 창조-심판-빙하시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참석하신 어른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다음 창조과학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창조과학탐사를 바로 예약하셨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목사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YWAM

지난 8월 19-21일 한국의 예수전도단 중학생 비전 여행을 겸한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YWAM에서는 매년 스케줄을 잡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경에 대한 확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도는 김병재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지난 8월 16일 남가주 사랑의 교회(이재만 선교사 인도), 8월 30일 LA온누리교회(노휘성 강사 인도)에서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015 멕시코 뿌에블라 창조과학선교

이동용 박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시티 동남부에 위치한 뿌에블라(Puebla)시의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여 창조과학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박성근, 김인옥 부부 선교사 사역지로 우아만틀라교회, 브니엘교회, 샤론교회 등 5개 현지 교회를 순회하며 성경말씀의 증거들을 나누었습니다. 2011년에 이어 이번에도 뿌에블라에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를 준비해 주신 선교사님, 통역으로 수고한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19기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한미장로교회(담임 주용성 목사)에서 9월 9일 부터 11월 11일까지 10주 동안 제 19기 중부창조과학학교가 열립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부터 9시 5분까지입니다. 문의 이동용 박사 creationbara@gmail.com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7기 ITCM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8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8주간 합숙을 하며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더불어 성경공부과 창조과학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인 창조론의 중요성 및 실제를 입체적으로 습득하며,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 부
2.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3. 본인 소개서 1 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1.5 페이지, 양식 없음)
4. 참고인 3명(연락처가 명시된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포함)

위 4 가지 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 서류는 현재 접수 중이며,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7명을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 노휘성remaininhislove@gmail.com

●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창조에 관한 두개의 다른 기록?

성경의 비평가들은 종종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창조에 관한 기록이고, 이 두 기록은 서로 명백히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건의 발생 순서가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창세기 1장은 식물과 새들이 인간 이전에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어떤 비평가들은 창세기 2장에서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은 아담이 이브 이전에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그들이 동시에 창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자주 그러하듯, 이러한 비평가들은 본문을 충실히 읽는데 실패했다. 창세기 1장 1절 – 2장 4절은 창조주간의 우주적 사건들에 대한 개관을 기록한다. 그것은 사건들의 순서와 각각의 날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요약이다.

창세기 2장5절 – 25절은 창조에 관한 두번째, 혹은 별개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창조 6일째 되던 날, 아담과 이브에 초점 맞추어 진, 좀더 자세한 기록이다. 이는 매우 명확한데, 창세기 1장 26절 – 30절은 6일째 되던 날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와서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차이점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은 식물이 3일째 되던 날 창조되었고, 인간이 6일째 되던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식물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제 6일째 하루 중 이른 시간에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창세기 2장 4절과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모순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창세기 2장 5절이 제 6일에 그 어떤 식물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오히려, 이 구절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들에는 (밭에는)"이라는 구절은 히브리 단어 sodeh 를 번역한 것이고, 이 문맥에서는 재배된 식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 6일에는 경작된 식물이 없었을 뿐, 여타 식물은 존재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동물들의 창조는 어떠한가? 창세기 1장 23절 – 30절에 따르면,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인간이 창조된 날과 같은 6일째 되던 날, 명백하게 인간의 창조 바로 이전에 창조되었다. 새들은 5일째 되던날, 따라서 인간 이전에 창조되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 – 20절은 아담의 창조를 묘사한 이후에 새들과 육지 동물들의 창조를 언급하신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실제로 동물들이 인간 이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라 – 이 구절은 단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동물들의 창조를 언급했을 뿐이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사건들이 언급된 순서가 그것들이 발생한 순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히브리어 동사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이 아닌, 행위의 완결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히브리 동사들은 영어 동사와 같은 시제를 갖지 않는다. 그 대신, 행위 동사의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은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같은 문맥에서, 행위의 완결성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한 창세기 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이 아담과 이브가 동시에 만들어 졌음을 가르친다는 주장은 어떠한가? 본문은 단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6일째 되던 날 만드셨음을 말씀하실 뿐이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대하여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창세기 2장을 읽어야만, 우리는 제 6일에 아담과 이브의 창조 사이에 아마도 6~7시간 정도는 흘렀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대부분의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은 단지 본문을 주의깊게 읽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 얻어지게 된다.

Jason Lisle, Ph.D., 2015. Two Creation Accounts?, Acts & Facts. 44 (9).
번역 : 이충현

창조과학 탐사

간 증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학창시절 지구과학을 좋아하면서도 진화론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지만 왠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진화론 연대표를 비롯한 것들을 외우기 싫어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 궁금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알게 되어 감사하다. 오빠와 그 식구들, 조카들 진화론에 사로잡혀 성경을 부인하는 상태인데 CD까지 가져가니 더욱 감사하다. 그들이 창조과학탐사에 가도록 후원하던가 참여의 기회가 열리기를... 새로운 기도제목이 간절해졌다.– *장순경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지층과 언어와 공룡 등등 모든 면에서 저의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지 전도폭발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면서 대상자에게 설명을 할 때마다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좀 시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러웠습니다. – *김윤용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저는 이번 탐사에서 얻은 게 성경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성경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겠습니다. – *윤신영 〈주님의 영광교회〉*

27년째 중학교 과학 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과학 교사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 하면서 살고 있지만 과학교사를 하면서 저를 화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물단원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과 지구과학단원에 지구 역사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껏 40년을 사실인 듯이 알고 있었고 의심은 했지만 거의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내 머리 속의 지식과 선교사님의 강의 내용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이언 캐년을 보면서 밀물이 밀려 오면서 모래를 쌓은 듯한 광경을 눈으로 보고 물이 있는 곳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가르쳤던 선상지를 사막에서 그렇게 많이 보면서 성경에 있으니 사실이겠지 그렇게 믿어야지 아니 난 믿고 있을꺼야 하고 나를 세뇌 시켜왔었던 노아 홍수사건이 확실히 역사구나 아니 역사이어야만 하는구나하는 확신과 함께 그 외의 강의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 *황미옥 〈구미하늘문교회〉*

모든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으나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선교사님의 명쾌한 강의로 희미했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 *박시구 〈진도늘푸른교회〉*

창조과학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성경이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초등 1부 교사로 섬기면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진화론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진화론을 배우는 아이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의 1점 1획도 모두 이루어짐을 믿

5/28—6/4, 2015

을 수 있을까. 이 생각 속에 창조과학탐사의 기회를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강의를 듣는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 *정연경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경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역사의 기록과 실제로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말씀을 너무 대충 읽었구나 싶었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눈, 얼음 이런 단어는 설명을 듣고 다시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바위에 나타난 흔적들을 보고 당시를 상상하고 심판 흔적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경관이 경관으로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 *윤난영 〈민락장로교회〉*

교회에서 리더로써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창세기에서 많은 의문 사항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어 또한 감사 드립니다. 교회에서 목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답이 성경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박영기 〈기독교대한밀양성결교회〉*

처음엔 단순한 여행인줄 알고 있던 터라 창조과학탐사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제가 이 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을 하다 보니…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 또한 완전히 성경 말씀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로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유대연 〈양재온누리교회〉*

God is good all the time! 탐사 일정 중에 언제나 선하신 창세 전부터 그 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신실하신 주님은 제게 최고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고 "로뎀나무"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1년 동안의 선교 후 한국에 돌아와 뚜렷했던 나의 비전이 흐려진 것 같아 지쳐 있었던 내게 사랑의 빵과 물을 먹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나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그 분의 사랑 안에서 확증된 시간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과 간증도 나누고 대화도 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걱정과 두려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주님 찬양하며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 *유태희 〈양재온누리교회〉*

탐사여행은 '노아의홍수– 빙하시대– 창조주=구원자– 처음이 좋았다– 날마다 좋다'의 스토리 진행에 맞춘 장소 이동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물이란 생각에서 심판의 결과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도 계시하고 계시는데 많은 이들이 맹인 되어 (패러다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이 가슴 아팠습니다.– *황혜정 〈순복음안락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5 / 2016 ACT Schedule

9/25-10/2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10/3-4	시카고베들레헴교회 (이재만), IL
10/4	LA온누리교회 (노휘성), CA
10/8-15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7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10/17 (저녁)	얼바인베델교회 (이재만), CA
10/20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CA
10/22-11/15	한국 방문 (이재만)
11/16-20	대만 방문 (이재만)
11/21-25	일본 방문 (이재만)
11/26-30	홍콩 방문 (이재만)
12/20	샌디에고한빛교회 (이재만), CA
12/21	Anza Borrego탐사 (한빛교회), 이재만
1/4-7	창조과학탐사 (17차 유학생), 이재만
1/26-29	창조과학탐사 (대구참좋은교회), 이재만
2/21-27	목포사랑의교회 (이재만), 한국
3/5-6	성광교회 (이재만), 한국
3/28-31	창조과학탐사 (남가주노회), 이재만
4/5-12	창조과학탐사 (서울충신교회), 이재만
4/20-30	창조과학탐사 (빛나교회), 이재만
5/2-10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